



우리 학생들의 프로그램 중 전환교육이라는 말이 많은데, 전환교육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마치고 성인 사회의 생활로 나아가는 과정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마련하는 교육모형
 - 첫째, 중등 이후 교육, 직업교육, 취업(지원 고용포함), 평생교육, 성인 서비스, 자립생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가르치는 결과 중심의 교육
 - 둘째, 반드시 학생 개인의 욕구나 기호, 취미를 반영한 교육
 - 셋째, 필요에 따라서는 종종 장애인의 일상생활 기능과 직업 기능 평가를 포함하는 교육을 의미
- ▶ 전환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부모와 성인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체계 하여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장애학생이 성인으로서의 삶은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점임

저자/제공처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http://www.nise.go.kr/>

▶ 평가 영역

- 자기 결정
- 대인 관계
- 통합된 지역사회 참여
- 건강과 몸 관리
- 독립적/상호의존적 일상생활
- 여가 및 레크레이션
- 고용
- 계속교육과 훈련
- 의사소통과 학업수행

▶ 평가 방법

- 배경 정보의 분석
- 면접/설문지
- 심리측정도구
- 작업표본 : 실제 직무나 모의 직무를 평가실에서 실시하는 방법
- 교육과정 중심평가
- 상황평가
- 직무현장평가
- 직무분석



직무분석이란?

- 한 개인이 구체적인 직업에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
- 직업의 적합성에 관련된 주요 요인을 평가하고, 특정한 직무가 한 개인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직접관찰, 지필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이루어짐

나의 꿈



난 엄마, 아빠가 될 거야!

난 우리 엄마처럼 화장도 잘하고 밥도 잘하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난 우리 아빠처럼 회사도 가고 나랑 놀아주는 좋은 아빠 될 거야

2019 교내 진로탐색 글·그림대회

초등 금상 초4 심가람 학생 작품 중에서



편견을 접으면
그들의 능력이
보입니다.



발행기관
전북푸른학교

진로교육 Tip 효과적인 자녀교육, 말의 힘(The Power of Words)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부모-자녀 사이의 대화는 언어, 비언어적 특성을 모두 지닌 상호 간의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녀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하나는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 할 때, 부모가 실천해야 할 '말 습관'을 소개합니다.

사회성을 길러주는 말 습관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나'만이 아니고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로써 바로잡아 주세요.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말 습관

학습 능력의 증진은 자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충분한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출처 : 임영주(2018), 「하루 5분 얼마의 말 습관」)

창의력을 높여주는 말 습관

부모가 결과물에 대해 자녀의 의견을 물어봐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힘,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말 습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해결책을 같이 의논하고 말로 이끌어주세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 습관

자녀의 말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화하세요. 자녀의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 편견과 배려, 소통하는 우리가족이 되는 법? 학부모신문리(www.parents.go.kr) 온라인 교육과정을 참고하세요. ♪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또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장애인의 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으로 인하여 아주 많은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이 생겼고 그때부터 장애인에 관한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여러 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에 대해 되돌아보는 날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많은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어 많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날 대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뜻을 모으기도 합니다.

먼 훗날, 다름이 인정받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장애인의 날'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글·그림 : 김우용(강릉 주문진초등학교 교사)

